재킷 입은 야누스

(눅3:1-14)

7.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재킷 입은 야누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야누스가 재킷을 입은 모습이 참으로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야누스는 아시다시피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유일하게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신과 매치가 되지 않는 신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문의 수호신이에요.
왜 이 야누스가 얼굴이 두 개인가 하면 로마사람들은 열고 닫는 문은 앞뒤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 바깥쪽의 문이 앞인지 성 안쪽의 문이 앞인지를 로마사람들은 구

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 수호신이 얼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얼굴이 앞에 있고 뒤 목 부분에서부터 얼굴이 또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누스에요.
그 야누스에게 우리가 제가 입은 양복 재킷을 야누스에게 준다고 한다면 도대체 야누스는 이 앞이 터진 재킷을 어떻게 입을까요?
고민하다가 늙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참 회개를 통해서만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그 회개가 올바른 회개라고 한다면 야누스가 재킷을 입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재킷을 입은 야누스로서의 신앙인의 모습을 띨 때는 재킷의 앞부분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재킷 입은 야누스의 모습을 띤 참 신앙인이 되는 과정은, 얼굴이 하나 있을 때 재킷을 입습니다.
얼굴이 하나 있을 때 재킷을 제대로 입으면 그때 뒤쪽으로 얼굴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굴이 하나 있을 때 재킷을 입는데, 재킷을 입고 나면 얼굴이 또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얼굴이 하나 있을 때 재킷을 거꾸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하나 있을 때 재킷을 거꾸로 입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이 뒤쪽에 하나가 더 생겨서 야누스처럼 얼굴이 앞뒤로 두 개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고, 그렇게 얼굴이 앞뒤로 두 개로 되어 있으면서 재킷을 입고 있는 상태가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가 바로 참 회개를 한 신앙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려고 유대인들이 요단강변에 있는 요한에게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선민을 보면서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앞의 두 복음서를 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퍼붓는 비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나와서 물세례를 받으면 혹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마음 상태로 나와서 아무리 물세례를 받아도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는 진노가 결코 너희를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서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말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한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얹어져 있다, 바른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연구하면 회개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가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독사,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인 뱀에게 오셔서 내리신 저주 가운데 어떤 내용의 저주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땅을 기어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라는 저주가 있습니다.
땅을 기어 다닌다는 것은 뱀이 자기의 배를 땅에 붙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배를 채우게 되었다는 얘기, 이게 붙어서 독사의 자식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게 무얼 말하는 겁니까?
뱀에게 내리는 저주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배를 이 세상에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허기짐을 언제나 흙을 먹어서 채우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 안에서 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주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은 내 배를 채우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허기져 있는데, 마음이 배고픈데, 그 마음을 채울 것들을 이 세상에서 찾는 자들이 독사의 자식 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유전자가 들어온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들을 찾고, 이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 잘됐다고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공부 잘해서 일류대학에 들어갔다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찾는, 세상을 향해 있는 자들,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이 선민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뱀처럼 뱀이 땅에 배를 붙이듯이 이 세상에 배를 붙이고, 뱀이 흙을 먹듯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기뻐하려 하고 보람을 느끼려고 하고, 성취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데 독사의 자식 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러면 무얼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배를 떼는 것이고 등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위기에 있더라도 회개한 신앙인은 그 사업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다.
자식이 문제가 생겨도 회개한 신앙인은 자식을 바라보지 않고 자식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말한 것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오늘 본문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얼굴을 향하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지금 사업이 문제가 될 때, 세상 안에 있는 사업이라는 문제를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내가 얼굴을 향하고 정면을 향하여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등지는 존재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언제나 나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서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피조 되어졌다면 그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등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 타락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독사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을 바라보고 내가하는 취직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결혼문제를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이 모든 세상을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내 굶주린 배를 하나님으로만 채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되지만 그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자꾸 사탄은 돈 문제를 보게 합니다.
'네가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 자식문제를 보게 하고 건강문제를 보게 하고, 내가 좀 더 승진하고 높아져야 된다고 보게 하고,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고, 계속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게 뱀이 하는 일입니다.
다 속임수예요, 등져야 되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배를 채우겠다는 얘깁니다.
내가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낸 것처럼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데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관계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관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 버는 듯이, 가정을 돌보듯, 취직을 해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많이많이 느껴

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제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등지고 있는 얼굴 쪽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 불쑥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 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누스가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면 재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신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이다, 내가 남편이다, 아내다, 어느 회사의 직원이다, 이게 신분의 옷이요 재킷입니다.
내가 얼굴이 하나일 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사업해야 한다고 하는 신분이 주어진 사장이라는 재킷을 거꾸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얼굴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한 거꾸로 입는 거예요, 거꾸로 입어서 얼굴을 돌렸을 때 이 재킷 앞부분이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가정을 돌보는 주부라면 이 가정을 향하여 내가 재킷을 거꾸로 입어서 얼굴을 가정에 등을 돌렸을 때, 재킷의 앞부분이 가정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신분의 재킷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대로 입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부 재킷을 거꾸로 입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어느 청년의 이야기인데,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윗도리 점퍼를 거꾸로 입었습니다.
거꾸로 입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논바닥에 거꾸로 쳐 박혔어요.
그걸 보고 놀라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쫓아가서 끄집어냈다가 또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목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바람을 막으려고 점퍼를 거꾸로 입고 가다가 논바닥에 철퍽 엎어져버렸으니 당연히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에 뒤통수가 보이고 뒤통수가 있어야 할 곳에 얼굴이 있는 겁니다.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입고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내 신분의 옷을 거꾸로 입어야 되는 것, 이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야누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등판이 밋밋하잖아요?
밋밋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면을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열매가 옷 두 벌 중에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음식도 비축해두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그냥 구제나 분배의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옷이 천 벌 만 벌 있는 사람이 한 벌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례요한은 두 벌 중에서 한 벌을 주라는 말입니다.
옷 두 벌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라는 얘기에요.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를 풀어버릴 수 있습니까?

또, 세리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으로 욕을 먹고, 유대사회에서 완전히 매국노로 취급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기쁨이 있다면 로마정부가 부과한 세금 이외에 여분을 거두어서 로마정부에게 바칠 것 바치고 난 뒤에 동족에게서 얻은 세금 중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착복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된 것 이상의 것을 착복하는 것 말고는 인생의 의미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과된 것 외에 걷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자면 살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나무가 바뀌라는 얘깁니다.

나무가 바뀐다는 것은 방향이 바뀌어 진다는 얘깁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신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이라서 가정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고, 내가 직장인이라서 회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사장이라서 사업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대통령이라서 나라의 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라서 아내를, 아내라서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신분의 재킷인데,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재킷은 거꾸로 입으라는 얘기에요.
얼굴을 세상에서 뒤통수를 보이도록 돌리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의 유전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란 세상을 향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향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세상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내 몸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등을 돌리세요.
그러면 내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반대편으로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식으로 재킷을 입으시고 활동해나가시는 겁니다.
가장의 재킷을 정식으로 입으시고 사장의 재킷을 정식으로 입으시고 아빠의 재킷, 아내의 재킷, 세상의 그 어떤 신분의 재킷이라도 하나님이 정식으로 입으시고 나는 등 뒤로 신분의 옷을 거꾸로 입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으로 끝장을 내야 돼요.
그게 법이고 규칙이에요.
그걸 어기면 회개가 안 일어나는 것이고,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돌리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돌려야 세상을 등지는 겁니까?
그냥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됩니까?
세례요한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리라,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라는 얘깁니다.
어떤 신분이 주어졌더라도 신분에 따른 책임의식 때문에 세상을 정면으로 향해 있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 책임의식의 재킷을 거꾸로 돌려버리라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 오리발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된다는 얘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너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정확하게 세상을 등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내 눈앞에 전개되더라도 세상문제인 한에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 독사의 자식임을 자처하는 것임을 깨닫고,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책임감의 부담이 나를 억압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세상이 주는 신분의 재킷을 거꾸로 뒤집어 입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를 고백하며 이 세상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날마다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얼굴 뒤쪽으로 얼굴을 불쑥 내미시고 내 등 뒤로 하나님의 가슴을 내미시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바로 입으신 내게 주어졌던 신분의 옷을 하나님이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 대신 아빠가 되시고, 내 대신 직장인이 되시고, 내 대신 대통령이 되시고, 내 대신 엄마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가 옷 두 벌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인 여분의 옷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것이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가 내가 등 돌리고 있는 사이에 내 여분의 옷을 하나 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옷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내 옷을 준비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재킷 입은 야누스, 이게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독사의 자식들의 유전자를 떨쳐내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참 신앙인의 재킷 입은 야누스의 모습을 위하여 사도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날마다 세상을 등지고 날마다 야누스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재킷 입은 야누스로서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향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때때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세상문제에 대하여 모든 사회적인 책임의 부담 앞에서 세상에 등을 돌리고, 세상에서 주는 신분의 재킷을 거꾸로 입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킷 입은 야누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모든 세상일을 해나갈 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